



중 점 분 석

위기의 예멘 - 살레 이후의 예멘 전망

박 대 원/국별조사실 책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위기의 예멘
- III. 살레 이후의 예멘 전망
- IV. 맺음말

요 약

2011년 1월과 2월에 각각 튀니지와 이집트의 장기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 혁명의 바람이 살레 대통령이 33년간 집권 중인 예멘에도 상륙하면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생활수준 향상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1월부터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걸프협력회의(GCC) 중재안 협상이 대통령의 서명 거부로 결렬되고 5월 말부터는 예멘 최대 부족인 하시드 부족과 정부군 간 교전이 계속되는 등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정국 불안과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멘은 반정부 시위 발생 이전부터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09년에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AQAP)가 예멘에 설립되면서 알카에다의 새로운 근거지로 부상하였고, 이후 AQAP와 관련된 테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부 시아파 반군과의 무력 충돌과 남부 분리주의 운동 격화 등으로 살레 대통령의 통치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또한 극심한 빈곤과 고실업률의 지속, 경제성장의 주 동력원인 원유의 감소, 수자원 부족에 따른 농업생산성 악화, 치안불안으로 인한 개발 프로젝트 추진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어 왔다.

2011년 6월 3일에 하시드 부족의 대통령궁 포격으로 살레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고, 살레 대통령이 부상 치료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면서 살레 대통령의 부상 정도, 귀국 여부와 시점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조기퇴진 압박을 받으면서 입지가 크게 약화된 살레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살레 대통령 이후 예멘은 기존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살레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뒤를 이을만한 강력한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알카에다의 공세 강화, 북부 시아파 반군과의 갈등 지속, 남부 분리주의 운동 격화와 더불어 다양한 부족 간의 세력 다툼으로 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는 등 사회혼란과 치안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유 생산량 감소, 수자원 부족, 치안불안에 따른 개발 인프라 추진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CC 등 국제 사회의 지원 확대로 경제 붕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

머리말

2011년 중동 지역의 가장 큰 이슈라면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중동 및 북부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된 민주화 혁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튀니지에서는 2010년 12월 중순부터 높은 물가와 부족한 일자리 등에 항의하며 시작된 반정부 시위¹⁾로 23년간 집권하였던 벤 알리(Zine el-Abidine Ben Ali) 전 대통령이 2011년 1월 14일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면서 정권이 붕괴되었고, 이집트에서도 30년간 통치해 온 무바라크(Hosni Mubarak) 전 대통령이 시위에 굴복하여 2월 11일에 사임하면서 중동의 민주화 혁명은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 바레인, 요르단, 알제리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살레(Ali Abdullah Saleh) 대통령이 33년 동안 장기집권 중인 예멘에도 도달하였다. 2011년 1월 중순부터 수도 사나(Sanaa)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조기퇴진과 생활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살레 대통령은 군부를 이용한 진압이라는 강경책과 공무원 임금 인상, 정치 개혁 등의 유화책을 병행함으로써 시위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위는 진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차 격화되어 갔다. 2011년 4월에 예멘의 정국 불안과 사회 혼란을 우려한 걸프협력회의²⁾(Gulf Cooperation Council: GCC)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살레 대통령과 야권이 이에 동의하면서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그러나 살레 대통령이 중재안에 서명하기 직전에 돌연 입장을 번복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중재 노력도 무위로 돌아가면서 협상과 타협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이양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부군과 시위대가 5개월 넘게 팽팽히 대립하면서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2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2011년 5월 말부터는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지지하는 하시드(Hashid) 부족과 정부군 간에 교전과 휴전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6월 3일에 하시드 부족의 대통령궁 공격으로 살레 대통령이 부상하는 등 반정부 시위는 사실상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 2010년 12월 중순에 수도 튀니스(Tunis)에서 200km 떨어진 시디 부지드(Sidi Bouzid)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고실업률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사태가 정부의 강경진압과 일자리 창출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튀니지 전역으로 확대되었음.
 2)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서 세계 원유 매장량의 37%, 천연가스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예멘은 반정부 시위 발생 이전부터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어 왔다. 9·11 사태 이후 예멘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알카에다 세력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09년에 알카에다 예멘 지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지부가 통합되어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Al-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가 예멘에 설립되면서 알카에다의 새로운 근거지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들의 공세 강화로 치안불안이 심화되었다. 2004년부터 북부 시아파 반군과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1990년 남북 예멘 통일 이후 계속되어 오던 남부 예멘의 분리주의 운동이 격화되면서 정부의 입지가 약화되어 왔다. 또한 예멘은 1인당 GDP가 1,330달러에 불과한 중동지역 최빈국으로서 높은 실업률의 지속, 경제성장의 주 동력원인 원유의 고갈, 수자원 부족에 따른 농업생산성 악화, 치안 불안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및 원조자금 집행 부진 등으로 인프라 개발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어 왔다.

반정부 시위에 따른 사회 혼란으로 정치·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살레 대통령은 대내외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³⁾ 조기퇴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예멘이 직면한 위기상황은 무엇이며, 반정부 시위사태의 배경 및 진행현황, 그리고 살레 이후의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위기의 예멘

1. 정치·사회적 측면

가. 알카에다의 새로운 근거지로 부상

그동안 예멘의 치안을 위협했던 것은 알카에다 및 관련 무장세력의 빈번한 테러 공격이었다. 2000년 아덴(Aden)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 구축함 콜(Cole)호 폭파, 2002년 프랑스 유조선 폭발, 2006년과 2008년의 항만 및 원유 시설 공격, 2008년 주예멘 미국 대사관 폭탄

3) 살레 대통령은 시위대의 강경 진압으로 GCC와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지를 상실하였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정치인들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으며, 중화기로 무장한 하시드 부족과 아흐마르 소장이 이끄는 제1기갑 사단 등 일부 군 세력이 이탈하는 등 대내외의 조기퇴진 압력으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음.



테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2009년 1월에 실질적으로 예멘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내륙 지역에 알카에다의 예멘 지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지부가 통합하여 AQAP가 설립되면서 알카에다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었다. 2009년 12월 미국 여객기 폭파 기도 사건을 비롯하여 주예멘 영국 대사 및 대사관 차량 폭탄 공격, 오스트리아 석유가스회사 포격, 소포 폭탄 테러,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암살 시도 등 다수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AQAP는 국제 사회가 가장 주시하는 테러조직으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미국은 예멘에 2009년 7,500만 달러, 2010년 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예멘의 중앙 정부가 도시 지역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은 전통 부족들이 자치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 일부 부족이 각종 이슬람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색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 관련자들은 이들 부족의 이슬람 교육기관에 침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총 인구의 3분의 1이 총기를 소유할 정도로 총기가 국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테러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나. 북부 시아파 반군과의 충돌

북부의 사다(Saada)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수천 명의 시아파 반군과 정부군 간의 무력 충돌이 200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치안불안 요인의 하나다. 북부 시아파 반군은 정부가 미국의 대 테러 전쟁에 공조하는 것에 항의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종교적 소외⁴⁾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왔다. 수년간의 교전으로 20만 명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북부 시아파 반군이 국경을 침범하여 자국 군인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09년과 2010년에 반군의 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는 등 예멘 정부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시아파 반군과 정부는 2010년 2월에 휴전에 합의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정부가 400여 명의 반군 수감자를 석방하는 등 휴전협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한데 힘입어 충돌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휴전 합의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⁵⁾

4) 예멘은 수니파 정권으로 총 인구 중 수니파가 53%, 시아파가 47%를 차지하고 있음.

5) 2007년 6월에 카타르의 중재로 정부가 반군 수감자 석방과 피해 마을에 대한 복구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휴전 협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서 교전이 재개된 바 있음.



다. 남부 분리주의 운동 격화

1990년 5월에 남북 예멘이 통일된 이후에도 남부의 분리주의 운동은 지속되어 왔다.⁶⁾ 통일 후 살레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회당(General People's Congress: GPC)이 남예멘에 기반을 둔 예멘사회당(Yemeni Socialist Party: YSP)을 탄압하면서 분리 독립운동을 촉발했고, 1994년에는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하여 군사력과 경제력이 앞선 북예멘은 2개월의 내전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남부 예멘인들에 대한 차별,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 인프라 개발 부진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남부 분리주의자들은 원유의 대부분이 남부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원유 생산에 따른 혜택이 수도 사나를 중심으로 한 북부에 집중되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분리주의 운동이 점차 폭력 시위로 변모하고 있어 향후 분리주의 운동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적 측면

가. 극심한 빈곤과 고실업 지속

예멘은 중동 지역의 최빈국으로서 1인당 GDP가 1,330달러에 불과하고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등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한 GCC 6개 회원국의 1인당 GDP가 공히 1만 달러를 상회하고 특히 카타르가 6만 6,520달러, UAE가 4만 3,740달러인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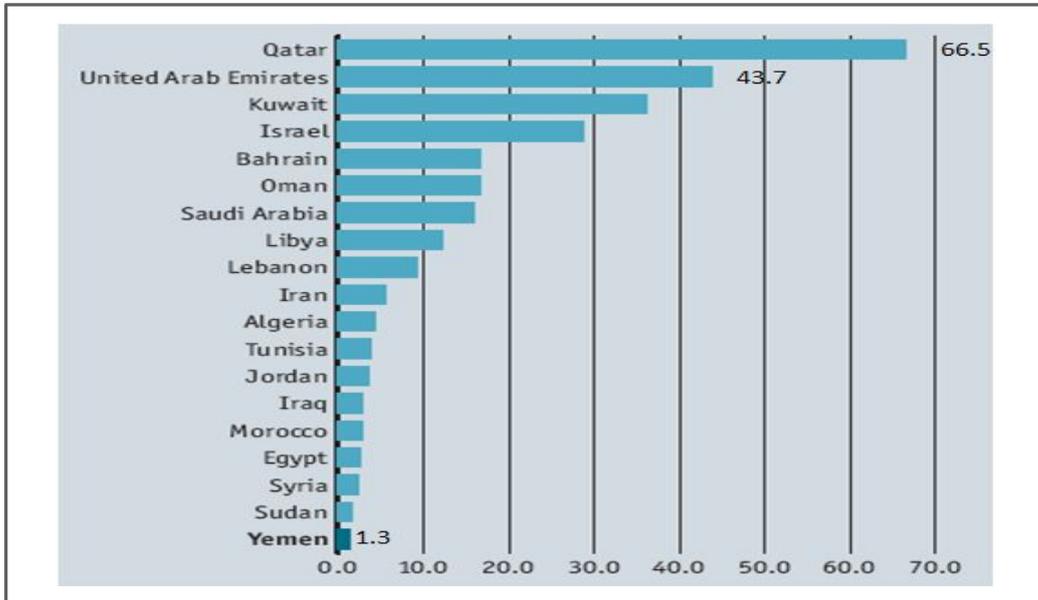
전반적인 생활수준도 매우 열악하다. 2010년에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도로, 식수, 보건 등 생활환경을 평가하여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예멘은 총 169개국 중 133위로 평가되었다. 상수도 등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용수의 공급률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57%에 불과하여 중동·북아프리카 평균인 80%를 크게 밑돌았고 전기 공급률도 40% 수준으로 중동 국가 중 가장 낮다. 도로·운송 시스템도 매우 취약하여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남부 지방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6) 예멘은 회교주의 북예멘과 사회주의 남예멘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90년에 동서 진영의 화해 분위기 등에 힘입어 통일되면서 예멘공화국으로 출범하였음.



<그림 1> 중동 국가들의 1인당 GDP (2010년)

단위: 천 달러



자료: EIU.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통신 부문의 경우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가 1.6명, 전화 선이 4.9개에 불과하여 중동 지역에서 통신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50만 개의 전화선 및 인터넷 설치를 허가하고 IT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통신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업률도 35~40%로 중동 국가들 중 가장 높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 인력이 미숙련 노동자로서 농업에 편중되어 있어 비농업 부문에는 숙련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도 연평균 3%에 달하고 있어, 실업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나. 원유의 점진적 고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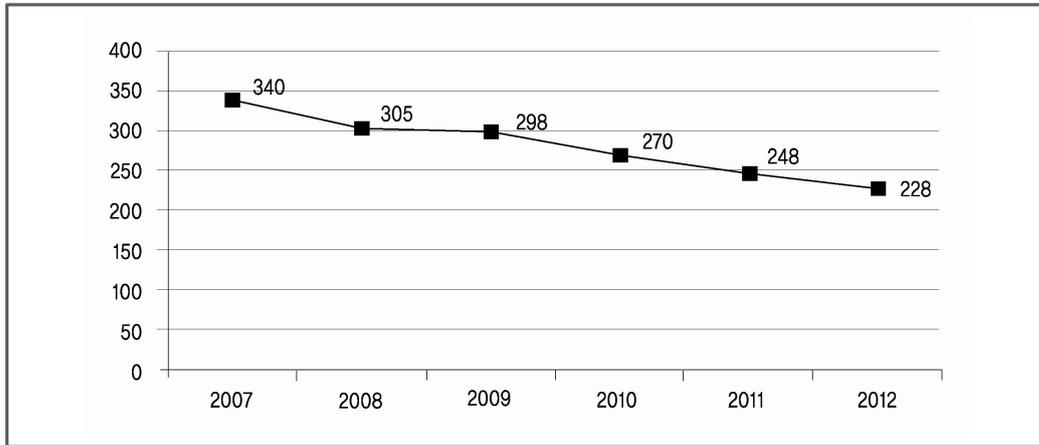
예멘은 석유산업이 수출의 85%,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유가의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예멘은 다른 중동국가들에 비해 원유매장량이 적다. 2009년 기준으로 중동 국가들은 전 세계 원유



<그림 2>

예멘의 연도별 원유생산량

단위: 천 배럴



자료: BP, EIU.

매장량의 56.6%, 생산량의 30.3%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멘은 원유매장량이 27억 배럴로 전 세계의 0.2%에 불과하고,⁷⁾ 생산량도 30만 b/d로 0.4%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⁸⁾에서 신규 유전을 탐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원유매장량이 적은데다 대규모 신규 유전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최근 수년 간 원유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50만 b/d의 산유량을 목표로 하여 왔으며,⁹⁾ 2003년에는 46만 5,000 b/d를 생산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최대 유전인 마실라(Masila) 유전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총산유량도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원유생산량은 전년의 29만 8,000 b/d 보다 10% 감소한 27만 b/d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22만 8,000 b/d로 감소하여 2003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의 지속으로 정국 불안과 사회 혼란이 심화되면서 석유산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11년 3월 중순 이후 마리브(Marib) 파이프라인 등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¹⁰⁾과 마실라 유전 등 주요 유

7) 원유매장량은 2004년 말 기준 40억 배럴이었으나 2009년 말에는 27억 배럴로 크게 감소하였음.

8) 2000년 6월에 예멘-사우디아라비아 간에 국경협정이 체결되면서 66년 간 지속되어 오던 국경선 문제가 해결되어 정치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원조 확대 및 인적 교류 증가 등 양국 관계가 급진전되는 계기가 되었음.

9) 신규 유전 탐사 노력의 결과로 다수의 소규모 유전은 발견되고 있으나, 대규모 유전은 발굴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50만 b/d 원유 생산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음.

10) 예멘 석유광물부 장관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이 야권세력에 동조하는 지방부족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전지대의 파업으로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OMV는 사회 혼란의 지속으로 아직까지 파손된 파이프라인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실라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캐나다 Nexen은 파업으로 원유 생산이 수일 간 중단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원유생산량은 금년 2월의 27만 b/d에서 3월 23만 b/d, 4월 17만 b/d로 급감하였고, 연간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량 감소에 따라 원유 수출도 2011년 1월에 전년동월 대비 26%, 2월에 2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치안 불안이 심화되면서 예멘에 진출한 외국 석유회사들이 추가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직원들을 철수시킴에 따라 생산량 감소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매월 3억~4억 달러에 달하며, 반정부 시위 사태 발생 이후 총 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멘은 천연가스도 보유하고 있으나, 확인매장량이 0.49조 m³로서 세계 점유율이 0.3%에 불과하여 이란, 카타르 등 천연가스 부국에 비해 그 양이 적다. 2009년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액화천연가스(LNG)도 새로운 재정 수입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나, 한정된 매장량으로 인해 원유 감소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수자원 부족

수자원 부족은 석유산업과 더불어 예멘의 2대 산업 중 하나인 농업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농업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인구 중 약 4분의 3의 직·간접적 소득원의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러나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비료 구입여력이 없어 생산성이 매우 낮고, 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해지면서 농업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특히 1인당 물 공급량은 연간 150m³로 세계 평균인 7,500m³의 약 2%에 불과하여 지하수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예멘은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고 비난하고 있음.



<표 1>

예멘의 연도별 인구증가율

단위: 백만 명,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 구	19.7	20.3	21.0	21.6	22.3	22.9	23.6	24.3
인구증가율	3.2	3.2	3.1	3.1	3.1	2.9	2.9	3.1

자료: IMF, EIU.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3%를 넘고 여성 1인당 출산율이 6.1명에 달하고 있어 20년 내에 총 인구는 4,0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치안불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 및 원조 자금의 집행 부진

예멘은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GCC 회원국 및 서방 국가들로부터 많은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2008년에 15억 5,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4년의 1억 4,400만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08년에는 매년 9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¹¹⁾ 또한 2006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 원조국 회의는 예멘에 53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200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억 달러의 긴급 재정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알카에다의 빈번한 폭탄 테러와 외국인 납치, 북부 시아파 반군과의 교전, 남부 분리주의 운동 등에 따른 치안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와 원조자금을 이용한 개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면서 경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GCC에 따르면 다수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들이 치안 불안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평균 자금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GCC 원조 자금으로 추진 중인 마리브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Marib Power Station Building Project)의 경우, 적격 응찰자가 없어 정부가 수 개의 업체를 접촉하였으나, 치안 불안을 이유로 프로젝트 수주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은 원유 고갈에 대비한 새로운 수입원 창출과 생활수준 향상 등을 위해서 인프라 개발 등이 절실한 상황이나, 치안 불안으로 다수의 개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1) 예멘은 2006년에 11억 2,100만 달러, 2007년에는 9억 1,7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음.



한편, LNG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2008년 10억 달러에 달했던 외국 에너지기업들의 대 예멘 투자규모가 2010년에는 5,60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 또한 미국, GCC 등의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살레 대통령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예멘에 대한 국제 원조 지원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¹²⁾

다. 경제지표의 악화

원유 감소, 수자원 부족, 치안불안에 따른 개발 프로젝트 지연 등에 따라 수년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각종 경제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예멘은 2000~05년까지 연평균 4.5%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이후에는 원유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3%대로 둔화되었다. 2010년에는 액화천연가스 수출에 힘입어 6%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산유량 감소와 사회 혼란의 영향으로 5%대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국혼란이 장기화 되는 경우 경제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수지는 2006년에 석유 보조금의 축소와 판매세 도입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에는 원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의 축소로 적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원유 생산량 감소, 알카에다 활동에 따른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재정 적자 폭이 GDP 대비 9.3%로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로 적자 폭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GDP 대비 5%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회혼란에 따른 산유량 감소의 영향으로 재정수입은 축소되는 반면, 공무원 임금 인상, 국방비 지출 증가, 휘발유 수입 증가¹³⁾ 등으로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GDP 대비 8%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와 농산물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석유 보조금 축소, 리알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 인상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2008년에는 상승률이 무려 19%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지속과 국제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나, 2010년에는 국제 상품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리알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상승률은

12) 살레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국제사회의 예멘에 대한 지원은 보류될 것으로 전망되며, IMF의 경제지원프로그램도 최근의 정국불안으로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보임. GCC는 살레 대통령의 GCC 중재단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 살레 정권 하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3) 원유 생산량 감소와 정유시설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부족분 충당을 위한 휘발유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두자릿 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에는 식료품 및 연료 가격과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¹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은 경상수지 적자 등 전반적인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7년 달러당 199리얄이었던 환율이 2010년에는 달러당 220리얄로 상승하였고, 2011년에는 달러당 230리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당분간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낮아 환율상승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수지는 2006년까지 원유 수출의 확대에 힘입어 흑자를 이어왔으나, 2007년부터 원유 수출 증가세 둔화, 리얄화 약세에 따른 수입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상수지도 과거 10여 년간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상품·서비스·소득수지의 적자로 2007년부터 4년 연속 적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LNG 수출 증가¹⁵⁾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 감소로 수출은 감소하고 휘발유 등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또한 LNG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이익금 송금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

예멘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 제 성 장 률	3.2	3.5	3.2	3.8	6.2	-5.5
재 정 수 지 / GDP	1.0	-5.9	-3.7	-9.3	-4.9	-8.3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10.8	7.9	19.0	5.4	11.2	16.2
환 율(달러당 리얄)	197.05	198.95	199.76	202.85	219.59	229.83
경 상 수 지	206	-1,508	-1,251	-2,565	-1,944	-3,298
총 외 채 잔 액	5,644	6,089	6,258	6,356	6,477	6,445
외 환 보 유 고	7,545	7,759	8,157	6,993	5,942	4,311

자료: <표 1>과 같음.

14) 생필품 부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디젤, 식수, 조리용 가스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15) 예멘가스공사(Yemen Gas Company)에 따르면 사회 혼란에도 불구하고 LNG 생산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6) 2011년 수출은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하고 수입은 국제상품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총외채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64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외환보유액은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말에 82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1년 말에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 수준으로 2010년 말의 59억 달러 대비 9억 달러 감소하였다.

3. 반정부 시위 발생

가. 시위 발생 배경

살레 대통령은 1978년에 북예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1990년에 통일 예멘의 대통령으로 추대되면서 무려 33년 동안 예멘을 통치해 왔는데, 이는 리비아의 카다피(Muammar Qadhafi) 국가원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집권기간이다. 살레 대통령은 2006년 대통령(임기 7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는데, 2011년 1월 1일에 예멘 의회가 대통령 3선 금지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4월에 예정된 하원의원 선거¹⁷⁾와 함께 실시키로 의결함에 따라 야당과 국민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개헌안 의결에는 여당인 국민의회당만이 참여하였고, 야당은 개헌안이 살레 대통령의 종신 집권은 물론 대통령직의 세습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 동안 야당은 살레 대통령이 공화국수비대(Republican Guard)를 이끌고 있는 장남 아흐메드(Ahmed Ali Saleh) 총사령관을 후계자로 육성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1인당 GDP가 1,330달러에 불과하고 인구의 43%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심한 빈곤, 35~4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만연한 부정부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잠재되어 왔다.

17) 하원의원(임기 6년) 선거는 당초 2009년 4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정 선거 보장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2년간 연기되어 2011년 4월 27일에 실시될 계획이었음. 그러나 최근 반정부 시위로 정부는 총선 연기를 발표하였음.



<살레 대통령의 장기집권제제 구축 과정>

- 1978년, 북예멘 대통령으로 취임
- 1990년, 통일 예멘 대통령으로 추대 (남예멘 대통령은 부통령직 수락)
- 1994년, 남부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으로 내전이 발발하였으나, 2개월 만에 내전에서 승리하여 권력기반 강화
- 199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 강화
(5인 대통령위원회 제도를 폐지, 대통령 임기 5년, 중임 가능)
- 1997년, 총선을 통해 국민의회당에 의한 단독정부 구성
- 1999년, 예멘 최초로 실시된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96%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되어 정치기반 강화
- 2001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는 등 장기집권 기반 조성
-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
- 2011년, 의회는 대통령 3선 금지조항 폐지를 포함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4월에 실시기로 의결

이러한 와중에 튀니지의 민주화 혁명이 성공한 데 크게 영향을 받아 국민들의 불만은 2011년 1월 중순부터 대통령의 퇴진, 생활수준 향상,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로 표출되었다. 살레 대통령은 시위 발생 초기인 2011년 1월 말에 국영 TV 연설을 통해 예멘은 민주국가로 모스크를 감시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튀니지와는 다르며 제2의 튀니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반정부 시위를 과소평가하고 정권유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으나, 현재는 대내외의 조기퇴진 압력으로 입지가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나. 시위의 진행경과

반정부 시위는 2011년 1월 중순에 시작되었다. 1월 16일에 수도 사나에서 예멘의 대학생들이 튀니지의 벤 알리 전 대통령의 사임을 지지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후 경찰이 살레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십 명의 시위대원이 체포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발전하였다. 이후 공무원과 군인 급여의 대폭 인상을 약속하는 등 유화책을 발표하였음에도 시위가 격화되자 살레 대통령은 2월 2일에 의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



고 2013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개혁조치를 환영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지속되었다.

<표 3> 예멘 반정부 시위 사태의 주요 진행경과

일 자	주요 내용
2011.1.16	수도 사나에서 튀니지의 대통령 축출을 지지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 발생
2011.1.23	시위대 1명 사망 및 시위 주동자 체포 등으로 사태 악화
2011.2. 2	살레 대통령은 임기 연장, 대통령직 세습 등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2011.2. 3	미국 정부가 살레 대통령의 개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지속
2011.3.18	정부군의 발포로 시위대 50여 명이 사망하였고,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2011.3.21	일부 군 세력(육군 제1기갑 사단장 등)이 시위대 지지 표명
2011.3.22	UN 주재 대사, 문화부 장관 등 일부 고위인사가 사임하고, 예멘에서 가장 큰 하시드 부족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
2011.3.29	살레 대통령은 권력을 과도정부에 이양하되 총선 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JMP는 즉각 퇴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
2011.4. 3	GCC 중재안 제안
2011.4.23	살레 대통령, 중재안 수용
2011.4.25	JMP, GCC 중재안 수용 ¹⁸⁾
2011.4.30	살레 대통령, GCC 중재안 서명 의사 철회
2011.5.18	중재안 서명에 합의했으나, 살레 대통령이 서명 전 시위대 해산을 요구하면서 GCC 중재안 서명이 두 번째로 무산
2011.5.21	살레 대통령이 중재안 서명에 동의하고, JMP는 GCC 중재안에 서명 ¹⁹⁾
2011.5.22	살레 대통령은 JMP의 GCC 중재안 서명이 대통령궁에서 재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서명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세 번째로 중재안 서명 무산
2011.5.23	GCC 중재단이 예멘에서 철수하고 하시드 부족과 정부군 간 무력충돌 시작
2011.5.30	남부 도시 타이즈(Taiz)에서 강경진압으로 시위대 50여 명 사망
2011.6. 3	하시드 부족의 대통령궁 포격으로 살레 대통령 부상
2011.6. 5	살레 대통령, 부상 치료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
2011.6. 6	하시드 부족과 정부군 간 교전 지속

18) 시위대는 살레 대통령 등에게 면책을 보장하는 GCC 중재안에 반대하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JMP가 시위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19) JMP는 2011년 5월 21일에 GCC 사무총장, 미국과 영국의 주예멘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GCC 중재안에 서명하였고 5월 22일에 동일한 서명 방식으로 살레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었음.



<표 4>

GCC 중재안 주요 내용

단계	내 용
1	살레 대통령, GCC 중재안 서명
2	서명 후 살레 대통령은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과도정부 수립을 야당에 요청
3	과도정부 수립
4	살레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고 30일 내에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며,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으로 보장
5	과도정부는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 실시

3월 18일에 정부군의 발포로 시위대 50여 명이 사망하고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살레 대통령이 퇴진하는 경우 예멘을 신흥 거점으로 하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활동 억제 등 대 테러작전의 연속성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그간 예멘 정부의 시위 강경진압을 공식 비난하거나 대통령의 퇴진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군의 발포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자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또한 강경진압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지지하여 왔던 일부 군 세력이 시위대 지지를 표명하고 UN 주재 대사, 문화부 장관 등 일부 고위인사가 사임하였으며, 살레 대통령의 소속 부족으로 예멘에서 가장 큰 하시드 부족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게 되었다.

2011년 4월 초에 GCC가 제안한 중재안을 정부와 야당연합²⁰⁾(Joint Meetings Parties: JMP)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의 조기퇴진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살레 대통령이 중재안 서명 하루 전인 4월 30일에 서명 의사를 철회하였다. 5월 22일에 살레 대통령이 GCC 중재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명장소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결국 서명이 무산되면서 시위사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²¹⁾ 현재까지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5월 23일에는 정부군이 하시드 부족의 사디크(Sadiq al-Ahmar) 최고지도자의 저택을 공격하면서 정부군과 하시드 부족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되어 시위 사태가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6월 3일에 하시드 부족의 대통령궁 공격으로 부상당한 살레 대통령이 치료차 사우

20) JMP는 예멘개혁당(Yemeni Congregation for Reform), 예멘사회당 등 4개 원내정당과 하크(Haq)당 등 2개 원외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야권 연합체임.

21) 2011년 5월 31일에 프랑스가 GCC 중재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등 아직까지 GCC 중재안에 따라 예멘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이미 세 차례에 걸쳐 GCC 서명 의사를 철회하였고, 5월 22일 서명 무산 이후 JMP가 GCC 중재안 추진을 포기하고 살레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GCC 중재안은 더 이상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디아라비아로 출국하면서 대통령의 부상 정도, 귀국 여부와 시점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이 수일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69세의 고령인데다 부상 정도도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국하더라도 수 주일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예멘의 석유산업 현황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변 걸프국가들과 비교하여 원유매장량은 크지 않으나, 석유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최근 산유량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석유산업은 수출의 85%,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표 5> 중동 국가별 원유 매장량/생산량 (2009년)

단위: 억 배럴, %

국 가	확인매장량	세계 점유율	국 가	생산량 (천 b/d)	세계 점유율
사 우 디	2,646	19.8	사 우 디	9,713	12.0
이 란	1,376	10.3	이 란	4,216	5.3
이 라 크	1,150	8.6	U A E	2,599	3.2
쿠웨이트	1,015	7.6	이 라 크	2,482	3.2
U A E	978	7.3	쿠웨이트	2,481	3.2
카 타 르	268	2.0	카 타 르	1,345	1.5
오 만	56	0.4	오 만	810	1.0
예 멘	27	0.2	시 리 아	376	0.5
시 리 아	25	0.2	예 멘	298	0.4
중동합계	7,542	56.6	중동합계	24,357	30.3

자료: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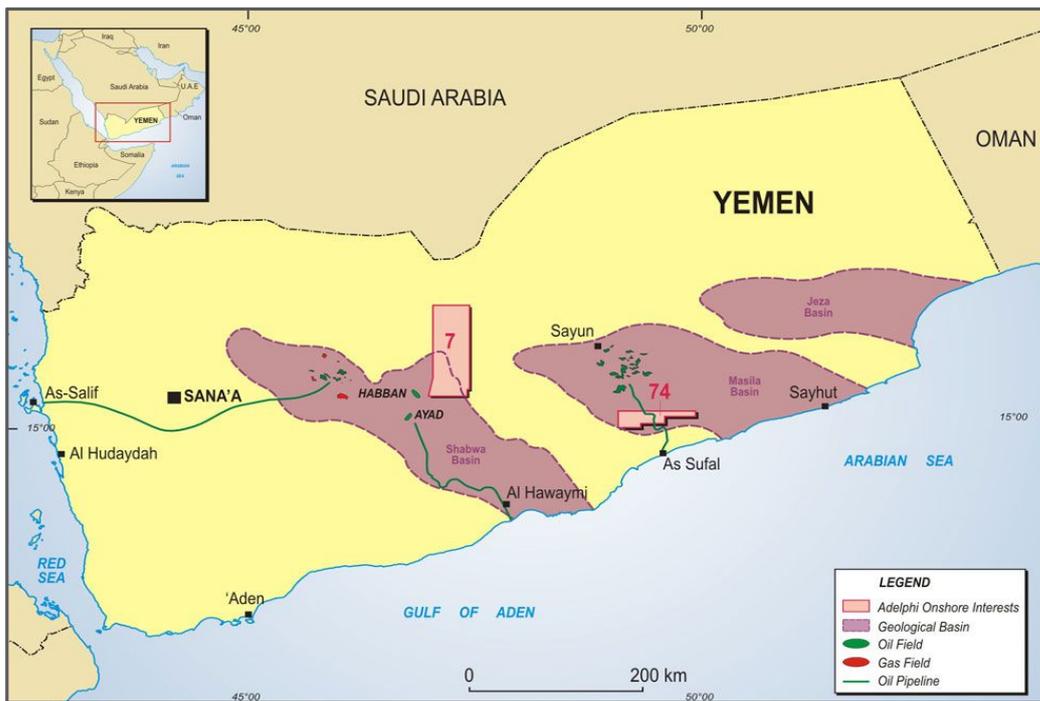


예멘의 원유매장량은 2009년 말 기준 27억 배럴로 전 세계매장량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유전은 중부의 젠나(Jannah)와 리아드(Lyad) 유전, 북부의 마리브-자우프(Marib-Jawf) 유전, 남부의 샤브와(Shabwah)와 마실라(Masila) 유전 등으로 이들 5개 유전이 전체 원유매장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원유 생산량도 이들 5개 유전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마실라 유전은 예멘 최대의 유전으로서 산유량이 6만 3,900 b/d이고, 마리브 유전이 4만 2,000 b/d로 그 뒤를 잇고 있다.²²⁾

예멘은 산유량 29만 b/d 중 17만 b/d를 수출하고 있다. 원유 수출은 아덴(Aden), 호데이다(Hodeidah) 등 5개의 주요 터미널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체의 약 60%가 중국,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림 3> 예멘 유전지역 분포현황



자료: www.bibliotecapleyades.net.

22) 1984년에 마리브 유전이 발견되어 1987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하였고, 1993년에 캐나다 Nexen사가 마실라 유전을 개발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였음.



<표 6> 예멘 유전별 매장량과 생산량 (2009)

유 전	매장량 (백만 배럴)	생산량 (b/d)
Masila	790	63,900
Marib-al Jawf	750	42,000
Jannah	335	29,100
East Shabwah	170	31,000
Lyad	135	500
East al-Hajr	60	28,200
Sharyoof	46	24,000
Tasour	29	18,000
An Nagyah	22	9,800
Nabrajah	20	15,600
기타	845	24,600
합 계	3,202 ^{주)}	287,000

주: 일부 유전(An Nagyah, Nabrajah 등)의 경우 확인매장량 뿐 만 아니라 가능매장량(Possible Reserves)을 포함함.
 자료: Global Insight.

원유매장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마실라 유전 등의 매장량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경지역과 아덴만 인근을 중심으로 신규 유전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07년에 실시한 아덴만 인근 해양 유전개발을 위한 입찰에 30개의 석유회사가 참여하여 주목받았으나,²³⁾ 소말리아의 해적 활동에 따른 치안 불안으로 유전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멘산 원유는 미국석유허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가 정한 API 비중²⁴⁾이 30도 이상으로 경질(輕質)유 또는 중질(中質)유에 해당되는 고품질 원유로 평가받고 있다. 마리브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API 비중이 45도에 이르고 예멘 최대 유전인 마실라 유전의 원유도 API 비중이 31~36도로서 품질이 우수하다. 또한 예멘 원유의 탐사·개발비용은 배럴당 6달러, 운영비용은 배럴당 1.4달러로 걸프 지역에서 낮은 수준이다.

23) 예멘은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유전개발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아덴만 인근 유전개발 입찰이 네 번째 유전개발 입찰이자 첫 번째 해양 유전개발 입찰이었음.

24) API 비중은 원유의 비중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API 비중이 33도 이상은 경질(輕質)유, 30~32도는 중질(中質)유, 30도 미만은 중질(重質)유로 분류되고 API 비중이 높을수록 정제비용이 적게 들어 고급유로 간주됨.



<표 7>

예멘의 유전별 API 비중

단위: 도

유 전	Marib	An Nayah	Nabrahah	Janna	Lyad	Masila
API 비중	45	40~43	36	35~48	35~48	3136

자료: <표 6>과 같음.

예멘의 유전개발은 캐나다의 Nexen, 미국의 Occidental, 노르웨이의 DNO, 미국 Hunt Oil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예멘 석유광물부(Ministry of Oil and Minerals)와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을 체결하고 있다. PSA는 총수익 중 개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해당국 정부와 개발회사들이 분배하는 것으로 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표 8>

중동 국가별 천연가스 매장량/생산량 (2009년)

단위: 조 m³, %

국 가	확인매장량	세계 점유율	국 가	생산량 (억 m ³)	세계 점유율
이 란	29.61	15.8	이 란	131.2	4.4
카 타 르	25.37	13.5	카 타 르	89.3	3.0
사 우 디	7.92	4.2	사 우 디	77.5	2.6
U A E	6.43	3.4	U A E	48.8	1.6
이 라 크	3.17	1.7	오 만	24.8	0.8
쿠 웨 이 트	1.78	1.0	바 레 인	12.8	0.4
오 만	0.97	0.5	쿠 웨 이 트	12.5	0.4
예 멘	0.49	0.3	시 리 아	5.8	0.2
중 동 기 타	0.43	0.2	중 동 기 타	4.5	0.2
중 동 합 계	76.18	40.6	중 동 합 계	407.2	13.6

자료: <표 5>와 같음.



예멘은 확인매장량 0.49조 m³(세계 점유율 0.3%) 규모의 천연가스도 보유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그 동안 투자 부족 등으로 개발이 부진하였으나, 2005년 LNG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예멘의 새로운 재정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멘 LNG 프로젝트는 45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마리브 지역의 천연가스(매장량 0.29조 m³)를 이용하여 2009년 10월부터 LNG를 생산하고 있다.²⁵⁾ SK(지분을 9.55%), 한국가스공사(6%), 현대(5.88%) 등 우리 업체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²⁶⁾ 2010년부터 이곳에서 생산된 LNG를 수입하고 있다.²⁷⁾ 향후 25년간 연 620만 톤의 LNG 수출이 가능하여 300억~500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멘이 2010년에 6%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한 것도 LNG 수출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

Ⅲ 살레 이후의 예멘 전망

1. 정치 · 사회적 혼란 심화

2011년 1월 중순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알카에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하시드 부족과 정부군 간 교전이 발생하여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등 예멘의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방위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살레 대통령이 결국 조기 퇴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살레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강력한 후임자가 부재한 예멘으로서는 살레가 퇴진한 이후에 정국 불안과 사회 혼란이 심화되고 치안 불안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5) 예멘 LNG 생산공장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되었으나, LNG 생산 개시시기는 당초 2008년 중순에서 2009년 10월로 1년 정도 지연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LNG 수요 감소에 기인함.

26) 프랑스 Total이 39.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Hunt Oil이 17.22%, 예멘가스공사가 16.7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27) 2010년 기준 예멘은 우리의 제9위의 LNG 공급국으로서 우리나라 LNG 수입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 우리나라의 예멘 LNG 수입액은 412백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 예멘 총수입액 4억 2,100만 달러의 98%를 차지하였고, 2011년 4월 말 기준 예멘 LNG 수입액은 3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하였음.



살레 대통령의 33년 장기집권과 철권통치로 인해 야당 세력의 성장기반이 미약하여 강력한 야권 대안세력이 없고 살레 정권 측의 인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강하여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방 부족, 북부의 시아파 반군세력, 남부 분리주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합할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는 결국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지역별·부족별²⁸⁾ 권력다툼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정부군과 교전하고 있는 하시드 부족은 살레 이후 과도정부 수립과 선거 과정 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정부 병력이 시위 진압을 위해 분산되면서 알카에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²⁹⁾ 알카에다의 세력 강화는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가 예멘 사태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2011년 3월에는 남부의 무기공장 폭발 사고로 1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최근 AQAP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장 대원들이 남부 도시 진지바르(Zinjibar)를 장악했으며 정부군은 이 지역을 되찾기 위해 알카에다와 교전하고 있다. 2009년에 예멘이 알카에다의 새로운 근거지로 부상하고 반정부 시위로 인한 혼란을 틈타 알카에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요 파트너로서 협력해 온 살레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에는 알카에다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북부 시아파 반군과의 휴전협정으로 현재 무력충돌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 휴전협정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일 이전의 남·북 예멘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는 남부 분리주의자들이 활동을 강화하여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8) 예멘에는 1,700여 개 부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부족은 중앙정부보다는 소속 부족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해서 예멘은 영토적 국가 정체성이 약함.

29) 멀린(Mike Mullen) 미 합참의장은 2011년 6월 8일에 예멘에서 장기간 지속된 반정부 시위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알카에다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살레 대통령의 후임자 예상>

살레 대통령의 30여 년 장기집권으로 야권 세력은 약화되어 있고, 현 정권 측 인사들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살레 대통령의 후임자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사디크(Sadiq al-Ahmar)는 예멘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하시드 부족의 현재 최고지도자이며 전 최고지도자인 압둘라(Abdullah bin Husayn bin Nasser al-Ahmar)의 장남으로서 2007년부터 하시드 부족을 이끌고 있다. 사디크는 2011년 3월 18일에 정부군 발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자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5월 말 부터 정부군과 교전하고 있다.

하미드(Hamid al-Ahmar)는 45세로 압둘라의 아들이다. 억만장자 사업가로 예멘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사를 비롯하여 위성 TV 네트워크 회사, 은행 등을 소유하고 있고, 1993년부터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예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 하미드 자신도 정치적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하미드가 예멘의 미래를 짊어질 주요 인물로 주목하고 있다.

아흐마르(Ali Mohsen al-Ahmar) 소장은 제1기갑 부대 사단장으로 살레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그러나 3월에 반정부 시위 지지를 표명한 후 수도 사나의 시위 현장에 병력을 배치하여 시위대를 보호하고 있으며, 여전히 군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살레 대통령의 장남인 아흐메드 총사령관은 예멘의 최정예 부대인 공화국수비대를 이끌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레 대통령이 대내외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권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버팀목이다. 야당은 과거부터 살레 대통령이 장남인 아흐메드를 후계자로 육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밖에 현재 대통령직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하디(Abd-Rabbu Mansour Hadi) 부통령, 예멘 사회당의 노만(Yaseen Saeed Noman) 사무총장도 살레 대통령의 후임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2. 경제적 어려움 가중

원유의 점진적 고갈, 수자원의 부족, 치안 불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 및 원조자금 집행 부진 등에 반정부 시위사태로 인한 정치·사회 혼란이 겹쳐 예멘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멘은 매장량 27억 배럴, 생산량 일 30만 배럴인 산유국이나, 대규모 신규 유전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을 경우 12년 내에 원유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농업은 총인구 중 약 3/4의 직·간접 소득원으로서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빠른 인구 증가로 농업 용수가 크게 부족하여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미국 및 GCC의 대규모 경제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치안 불안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의 자금 집행률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알카에다의 공세 강화 등으로 치안 불안이 가중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살레 이후의 정권도 이러한 경제적 도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 위기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 GCC의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예멘이 원유 감소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GCC 국가들의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붕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GCC는 예멘의 반정부 시위 발생 전부터 예멘의 경제적 붕괴가 회원국들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여 경제 지원을 강화하여 왔다. 2006년 11월 런던의 원조국 회의에서 총 53억 달러의 원조 중에서 27억 달러의 원조를 예멘에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09년에 2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였다. 예멘이 GCC 회원국은 아니나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경우 주변 GCC 회원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GCC는 예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GCC가 반정부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레인과 오만에 각각 10년에 걸쳐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러한 예상을 가능케 한다.



한편, 2015년까지 GCC에 가입한다는 예멘 정부의 목표는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멘은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GCC 회원국이 아닌 유일한 국가로, 1996년 이래 GCC에 가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2년 9월에 보건, 교육, 노동 등 여러 분야의 GCC 위원회에 대한 옵저버 자격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예멘이 GCC에 가입한다면 개발원조 수혜, 인력 송출 등을 통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멘의 노력이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멘이 아라비아반도 최빈국으로 GCC에 가입할 경우 발생할 경제·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군주제인 GCC 회원국들과 달리 예멘은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으며,³⁰⁾ 걸프전 당시 예멘이 이라크를 지지했던 점 등을 들어 일부 회원국들이 회원 가입을 반대하기 때문이다.³¹⁾ 최근 발생한 반정부 시위 사태의 영향으로 예멘의 GCC 가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IV 맺음말

예멘은 AQAP 설립에 따른 알카에다의 공세 강화, 북부 시아파 반군과의 무력 충돌 지속, 남부 분리주의 운동 격화로 정부의 통제력이 점점 약화되고 치안이 악화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원유의 고갈, 수자원 부족, 치안불안에 따른 개발 프로젝트 추진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에다 최근 반정부 시위에 따른 사회 혼란으로 인해 예멘은 1994년 내전 발발 이후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반정부 시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틈타 알카에다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어 예멘 남부의 여러 도시가 알카에다의 수중에 넘어감에 따라 이들 지역을 되찾으려는 정부군과 알카에다의 교전이 계속되어 현재까지 1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30) GCC는 2011년 5월에 같은 왕정국가인 모로코와 요르단의 GCC 가입신청에 대해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1) 예멘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지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회원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었고 GCC의 대 예멘 원조 삭감과 예멘인 근로자의 추방조치로 이어짐.



또한 하시드 부족과 정부군 간 교전으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시위대를 지지하는 군 세력과 정부군 간 교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살레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마땅한 후임자가 없어, 군 세력이 아흐메드 총사령관이 이끄는 공화국수비대, 아흐마르 소장이 이끄는 제1 기갑 부대, 그리고 하시드 부족 등 정치적으로 또는 부족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세력들로 분할되어 대규모 내부권력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정치·사회적 혼란과 치안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멘의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GCC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예멘 자력으로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2006년 런던 원조회의에서 약속한 53억 달러가 조속히 집행되고 추가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멘 정부는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위해서 신규 유전발굴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전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살레 대통령의 사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살레 대통령의 퇴진 거부로 사회가 분열되고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GCC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살레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거취가 결정되지 않는 이상 예멘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치안 불안의 주된 원인인 알카에다의 공세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살레 이후 정부는 미국 등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공조를 통해 테러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치안불안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치안불안이 지속될 경우 아덴만 인근 해양유전 개발과 개발 인프라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기업들도 예멘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대 예멘 LNG 수입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예멘 사태의 변동 추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K



<참고문헌>

1. 한국수출입은행, “2011 개도국경제 분석과 전망”, 2011. 4.
2. _____, “예멘 반정부 시위의 진행 현황과 전망”, 2011. 4.
3. _____, “예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2.
4.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0.
5. EIU, “Country Profile: Yemen”, 2008.
6. ____, “Country Report: Yemen”, June 2011.
7. Global Insight, *Energy Report-Yemen*, November 2009.
8. _____, *Energy-Analysis*, May 2011.
9. _____, *Energy-Analysis*, June 2011.
10. IMF, “Country Report: Yemen”, October 2010.
11. ____,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April 2011.